

장바구니 물가 쟁쟁... 장보기가 무섭다

제과업계 아이스크림 100~200원 인상 계획

채소·삼겹살은 이미 올라... 정부 발표와 괴리감

맛별이름을 하고 있는 회사원 박모(35·여)씨는 요즘 장보기가 무섭다. 세 식구의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찾았는데 사려는 상품의 가격이 쾅쾅 뛰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요즘 마트를 가서 장을 보다보면 제품을 몇 개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많이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에서는 전체 물가가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채값 물가와 괴리감은 여전히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 1월부터 담배값이 2000원 오르고, 햄버거에 이어 아이스크림까지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

다. 일부 채소가격도 상승하고 구제역 파동으로 삼겹살 가격 역시 크게 올라 서민들이 느끼는 채값 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푸드 등은 유통 채널별로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협상에 들어가 이달 중으로 공급가를 6~10%가량 올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격으로 환산하면 100~200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제과업계는 이번에도 모두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내세웠다.

서민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이 뿐만

이 아니다. 가공식품 이외에도 삼겹살, 생선, 채소 등 농수축산물의 가격은 이미 올랐다. 소비자 식탁 물가에 근심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상추, 시금치, 당근 등 채소와 생선, 고기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상추(적·100g) 평균 가격은 695원으로 1년 전 593원보다 17.2% 올랐다. 시금치(1kg) 가격은 5187원으로 3385원보다 33% 뛰었고, 마늘(1kg) 6.5%, 당근(1kg) 5.7%, 풋고추(100g) 1.7% 상승했다. 고등어(1마리)도 4006원에 팔려 지난해 3482원보다 15.1% 올랐다. 갈치(1마리)도 20.0% 뛰었다.

구제역 등 여파로 최근 공급이 급감한 삼겹살 가격은 100g에 1578원에 판매되면

서 1년 전보다 6.8% 올랐다.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수입삼겹살도 1143원에 거래돼 1년 전보다 13.2% 상승했다.

냉동식품 가격도 올랐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 돼지고기값 상승에 만두, 돈까스 등 냉동식품 가격을 인상했다. 순대지등심돈까스는 6980원에서 7480원으로 7.16%, 백설군만두는 7480원에서 7880원으로 5.14%, 비비고왕만두는 7980원에서 8450원으로 5.88%, 백설만두(510g 2봉)는 5980원에서 6180원으로 3.44% 올랐다.

한편, 광주 지역은 지난해 생활물가지수가 1.3%나 올라,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평균 상승률 0.8%)을 기록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효성 '폴리케톤' 상용화사업 팔 건졌다

창조경제 프로젝트 가동

효성이 고성능 신소재 '폴리케톤' (polyketone)의 상용화를 위해 '창조경제 플래그십 프로젝트 킷아웃 미팅'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효성은 6일 WPM(World Premier Materials·세계일류소재개발사업) 사무국과 폴리케톤 수요업체 관계자가 최근 안양 효성기술원에서 프로젝트 추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폴리케톤은 효성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다.

화학적으로는 일산화탄소와 올레핀(에틸렌·프로필렌)으로 이뤄져 있다. 오일원을 소재로 만들어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로 불리기도 한다. 나일론과 비교할 때 충격을 견디는 강도와 내화학성이 뛰어나고 내마모성, 기계적 안정성도 현존하는 소재 중 최고 수준이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대표 소재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내외장재, 연료계통 부품, 타이어코드, 산업용 로프, 벨트 등에 두루 쓰일 수 있다.

창조경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단기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폴리케톤 등 3개 분야가 1월에 선정됐다.

효성과 WPM 사무국, 수요업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재 개발 경험과 성형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

광주 '스마트공장' 방문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6일 광주지역 '스마트공장'을 방문, 발전방향을 청취했다.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6일 평동산단의 자동차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체인 ㈜나전(대표 김진우)과 소촌산단 자동차용 차체부품 제조업체인 ㈜호원(대표 양진석) 공장을 각각 방문했다.

강 이사장은 현장에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발전방향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혁신을 돕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진석 호원 대표는 "세계적인 생산공정 관리를 바탕으로 불량률 0%에 도전하는 품질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차 전시장 방문하면 장난감 드려요. 전국 기아차 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전시장 모형 장난감과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봄 맞이 전시장 방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m)를 참조하면 된다. <기아차 제공>

금호아시아나, 오늘 금호고속 우선매수권 행사할 듯

박삼구 회장 임원 회의서 "반드시 인수해야" 강조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의 신호탄이 될 금호고속 인수를 놓고, 금호아시아나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8일 경제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금호고속 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트 파트너스에 금호고속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9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9일은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통보 시한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주 그룹 사장단 등이 참석한 임원 회의에서 "금호고속이 그룹에 재편되는 게 순

리에 맞다"며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선매수권 통보 시한을 하루 앞둔 8일, 서재환 그룹 전략경영실 사장 등을 중심으로 인수전 담당 임직원이 모두 출근해 금호고속 재인수를 위한 막바지 검토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금호고속의 현금창출 능력이 뛰어난데다 그룹의 모태기업인 만큼, 금호아시아나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9일 IBK투자

증권-케이스트 파트너스에 공문을 보내 그룹 입장을 최종 전달할 예정"이라며 "인수는 무난히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IBK 측은 지난달 23일 금호아시아나에 5000억원 대 안팎의 매각 가격이 담긴 최종 매각 제안서를 발송했으며 금호아시아나는 2주 동안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 왔다. 금호아시아나가 우선매수권 행사를 결정하면 오는 6월9일까지 인수대금을 완납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금호고속은 3년여 만에 금호아시아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임동률기자exian@

로또복권 (제64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4 15 18 21 26 35	2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728,768,834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4,024,027	48
3 5개 숫자 일치	1,582,156	1,639
4 4개 숫자 일치	50,000	85,410
5 3개 숫자 일치	5,000	1,404,905

한전, DJ센터서 '국제 전력 신기술·발명대전' 연다

10월에 '빅스포 2015'

빛가람 혁신도시에 등지를 둔 한국전력이 한전발명특허대전의 외연을 넓힌 '빅스포(BIXPO) 2015'로 국내외 전력 기술 발전 선도에 나선다.

한전은 8일 BIXPO 2015(빛가람 국제 전력 신기술 및 발명대전)을 오는 10월12일부터 사흘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BIXPO는 세계 35개국 100여개의 기업에서 2000여명의 국내외 전력분야 관계자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전력기반 전시회 가 될 전망이다.

전력 신기술 전시회는 신기술관과 기

술사업화관으로 나뉘며, 국제발명대전은 국제발명품관, 국내발명품관 및 일반인 및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산·학·연이 동시 참여해 미래 전력기술인 DC배전, 분산형 전원, 탄소포집저장, 전력에셋(전력설비 자산관리) 등을 교류하는 국제 컨퍼런스도 함께 열리게 된다.

이 행사는 한전이 빛가람 혁신도사로 본사를 이전한 뒤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국내행사로 열렸던 한전발명특허대전을 세계화하고, 광주·전남지역 에너지 밸리 허브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25억원 수출계약 성사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가 광산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고, 25억원 가량(2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8일 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과학기술기술포럼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미국과 독일, 에스토니아 등 6개국 16명의 해외 바이어는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 등을 둘러보고, 광(光) 관련 6개 기업과 25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안티 카스크(에코라이트·에스토니아)씨는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지만 이처럼 체계적인 구축된 대형 광산업 클러

스터는 처음 봤다"며 "광주지역 광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 생겼 것 같다"라고 광주지역 광산업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광산업진흥회는 현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광산업 해외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 전시회 공동부스 구성 등 광주지역 광산업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용진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행사에 참여한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 국제광산업전시회에 초청해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등 지역기업의 수출실적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6.25에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라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아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은 불경기용 맞춤브랜드 손님들께 특별한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나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